

#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비교\*

Determinants of household expenditure in single-parent families:  
A comparison between single-mother families and single-father familie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고 선 강\*\*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oh, Sun-Ka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for single-parent families to better underst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o consider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cisions on monetary allo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s and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patterns for single-father families as compared to those for single-mother families. A series of analyses of the data, which was gathered from the 2015 Single-parent Family Survey on household expenditur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household expenditure volumes and patterns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expenditure and variations in the share that was allocated for each expenditure category in single-father families as compared to in single-mother families we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found in seven categories of household expenditure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The amount allocated from total expenditures for each expenditure category wa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ingle-father families and single-mother families in regards to clothing, home equipment, housing, water/light/heat costs,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determinants of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for single-parent families were age, level of education, number of family members, public transfer, household income, assets, and debt.

\* 본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Key Words :** 한부모가족(single-parent families), 가계지출(household expenditure), 모자가족(single-mother families), 부자가족(single-father families), 자녀 교육비(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

## I. 서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1%가 한부모 가구라고 한다. 통계청(2017)에 의하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를 19,524천 가구로 추산하는데, 이중 2,127천 가구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추산되어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9%였다. 최근 5년 간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10%대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6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445,801가구이고, 조부모나 친척 등과 동거하지 않고 한부모 어머니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이 229,913가구, 역시 타인과 동거하지 않고 한부모 아버지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이 93,651가구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부모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족의 비율이 28.94%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1/4을 넘어섰다.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모자가족이지만 부자가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가족에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모자가족이 한부모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모자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한다(강기정·박수선, 2013; 배다영·진미정, 2011; 손서희, 2013; 이성림, 2004; 진미정·김은정, 2004).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의 어머니들은 취업한 상태에서 한부모가 되는 것 보다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낮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경력이 단절된 어머니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를 찾기 보다는 자녀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불충분한 소득은 모자가족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부자가족은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는 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자가족의 경제적 취약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선강, 2014; 고선강, 2015; 노정자·강기정, 2012; 배다영·진미정, 2011). 평균적으로 부자가족의 가계소득은 모자가족 보다 높지만, 양부모가족과 비교하면 부자가족의 가계소득도 현저하게 낮다. 저소득층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가계소득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측면에서는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 더 취약할 수 있음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고선강, 2015).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문은영, 2011).

안정되고 건강한 가계경제 관리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정을 꾸러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조희금 외, 2010; 홍성희 외, 2008). 건강한 가정의 물적 토대가 되는 안정적인 가계소득 창출과 합리적인 자원관리를 통한 건강한 의식주 생활은 건강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또한 가족자원관리의 여러 영역 중 합리적인 경제자원 관리는 가족자원관리에서 없어서

는 안 될 필수적인 영역이다. 경제자원의 투입부터 자원관리의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는 산출을 만들어내는 자원관리의 기술은 개별 가계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라 하겠다(홍성희 외,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경제상황과 경제자원 관리는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서지원, 2013; 손진분·박미려, 2007)에 더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미래의 진학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정윤·원아름, 2014; Ziol-Guest, 2009). 한부모가족의 경제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한부모가족의 경제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관한 연구이거나(김진옥, 2010; 이성림, 2004; 진미정·김은정, 2004), 경제자원관리의 투입요소인 소득과 자산에 대한 연구들(고선강, 2014; 고선강, 2015; 김진옥, 2010; 이성림, 2004)이 대부분이고 연구의 대상도 모자가족에 집중되어 있다(곽민주·이희숙, 2003; 양세정, 2005; 여윤경·양세정, 2001). 가계의 경제자원 관리를 분석할 때 투입의 측면(소득, 자산, 신용, 인적자원 등)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산출(지출, 저축행동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자원에 관한 연구들은 투입 요소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다수인데, 가계가 주어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가계의 지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부모가족 경제자원 관리의 다른 측면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였는지, 어떤 비목에 지출을 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들 대다수가 모자가족에 대한 연구들이라는 점도 부자가족의 비율이 늘어나는 한부모가족의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 경제자원 관리의 가계지

출을 연구하고자 한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가계지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한다.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가족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한부모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한부모가족의 가계경제 실태

한부모가족의 가계경제 구조는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2015)의 2015 한부모가족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89만원으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기준 월 39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은 조금 높아졌으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한부모가족의 유형에 따라 모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 부자가족,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지출은 152만원이었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과 지출액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5년 조사에서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의 지출이 많아졌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했던 통계청(2014)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도 한부모가족의 가계경제 실태를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나

타난 한부모가족의 평균 가구소득은 2,838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4,676만원의 약 61%였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 보다는 높게 조사되었으나 전체 가구와 비교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조는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적 이전 소득이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소득 구간별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극빈층(연간 1,000만원 미만의 소득)에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낮았으나, 연간 3,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집단에는 한부모가족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한부모가족의 가계경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도 한부모가족, 특히 모자가족의 가계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보고하고 있다.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김진욱(2010)의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한 경우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 20~3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부모가족의 빈곤율보다 3배~3.5배 높은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가계경제가 소득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한부모가족이 빈곤선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는 한부모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빈곤선의 크기에는 한부모의 성별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자가족이 빈곤한 가구로 들어가는 것에 더 취약하지만 빈곤의 심화에는 가구주의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자산과 부채상태를 비교 분석한 고선강(2014)도 한부모가족의 자산과 부채의 구조가 양부모가족 보다 취약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양부모가족의 적립식 금융자산, 목돈투자, 실물자산의 보유 비율이 한부모가족보다 더 높고, 총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수준도 양부모가족이 월등하게 높았다. 부채 보유 현황에서도 양부모가족은 실물자산을 담보 또는 개인 신용을 기초로 한 부채의 보유율이 높은 반면 한부모가족은 담

보나 개인 신용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기타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의 부채의 보유율이 높았다.

양부모가족과 모자가족의 경제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모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박민주·이희숙(2003)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과 양부모가족의 가계경제 상태를 소득, 자산, 지출, 채무비율 등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간 총소득과 총지출, 1인당 환산 소득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양부모가족의 소득이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며, 총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도 양부모가족이 월등하게 많았다. 채무비율을 이용한 비교분석에서도 소득대비 소비비율, 부채부담 비율, 자본축적 비율 등에서 준거기준에 만족하는 모자가족의 비율이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적었다. 지출비목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비목에 대해 모자가족은 식비, 교육비, 각종 채무의 원리금 상환의 순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부모가족은 교육비, 채무 원리금 상환, 식비 순으로 나타나 모자가족은 식비와 같은 필수제에 대한 지출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림(2004)은 부양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맞벌이 양부모가족, 홀벌이 양부모가족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였다. 모자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맞벌이 양부모가족의 45%, 홀벌이 양부모가족의 54%로 매우 낮았다. 특히 소득구성을 비교한 결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자가족은 72%, 양부모가족은 96%로 모자가족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은 더 높았다. 모자가족은 전체소득의 79%를 지출하였고, 맞벌이 양부모가족은 66%를, 홀벌이 양부모가족은 7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가족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자가족의 소득 수준은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저축 여력은 적어지게 된다. 모자가족의 빈곤율은 48%, 맞벌이 양부모가족 11%, 홀벌이

양부모가족 15%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모자가족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모자가족의 경제 상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미정·김은정(2005)은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물질적 곤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모자가족을 포함한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게 물질적 곤궁의 경험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고, 연구표본의 70%가 넘는 가족이 필수소비재의 구매 연기, 공과금 연체 등을 경험하였다. 남편이 있는 여성가장 가족과 비교하여 모자가족은 병원 방문을 연기하는 등의료관련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았고, 자녀와의 별거를 경험할 확률도 높았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경제 상태를 비교한 연구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고선강(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자산과 소득의 보유율과 보유수준에 있어서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모자가족은 저축, 보험, 예치식 저축 등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자산의 보유율이 높았고, 부자가족은 주식, 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의 보유율이 모자가족보다 높았다. 부자가족의 소득과 자산수준이 모자가족보다 높고, 자가 비율도 높고, 한부모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한부모 어머니의 근로소득보다 월등하게 높아 부자가족이 모자가족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을 다른 가족유형과 비교한 여윤경과 양세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유형은 가계의 총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이다. 가구유형을 양부모가구, 무자녀가구, 일인가구, 3세대 확대가구, 모자가구로 구분하고 소득, 자산, 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거유형을 통제한 후에 가구유형이 가계의 총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양부모가구와 비교하여 모자가구의 총소비지출이 더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족유형

은 지출 비목별 구성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양부모가구와 비교하여 한부모가구의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기타 지출비의 비중은 낮았으며,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의 비중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자가족과 양부모가족의 소비지출을 분석한 양세정(2005)의 연구도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모자가족의 총소비지출은 60%로 나타나 모자가족의 지출 규모가 작다고 보고하였다. 비목별 지출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모자가족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지출 구성비에서 양부모가족보다 높게 나타났고, 보건의료비, 외식비, 기타 소비지출 구성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모자가족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에 주목하였는데, 모자가족의 총소비지출 규모는 양부모가족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교육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모자가족의 가계 형편이 어렵지만 자녀 교육에 주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자가족의 지출은 모자가족의 특성,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자원의 보유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지출을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비지출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홍철과 최현자(2014)는 유자녀 한부모가족과 유자녀 부부가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부모가족은 유자녀 부부가족과 비교하여 교육비 지출이 낮았고,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 등의 필수적인 비목에 대한 지출이 높았다. 유자녀 한부모가족의 소비지출을 장년기, 중년기, 은퇴기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장년기의 유자녀 한부모가족은 주거수도광열비 지출비율이 높았고, 의류신발, 오락문화비의 지출 비중이 중년기, 은퇴기 한부모가족보다 높았다. 교육비의 경우 장년기 한부모가족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중년기 한부모가족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족이 장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 가면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결과였다. Ziolk-Guest(2009)도 한부모가족의 비목별 지출의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의 1980년부터 2003까지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분석하여 모자가족, 부자가족, 양부모가족의 가계지출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부자가족의 가계지출은 모자가족, 양부모가족과 달랐는데, 양부모가족의 가계지출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은 외식비, 술과 담배비의 지출이 많았고, 자녀 교육비, 장난감비, 도서구입비의 지출이 적었다. 부자가족과 모자가족을 비교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는데, 부자가족은 모자가족보다 외식비, 술과 담배비로 지출이 많고, 자녀교육비 도서구입비의 지출은 더 적었다.

## 2.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 영향 요인

선행연구들은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 가족유형(양세정, 2005; 여운경·양세정, 2001; 최홍철·최현자, 2014) 연령(배미경, 1998; 양세정, 2005; 여운경·양세정, 2001), 교육수준(배미경, 1998; 양세정, 2005; 여운경·양세정, 2001), 취업여부 또는 직업(양세정, 2005; 여운경·양세정, 2001), 가족 수(배미경, 1998; 양세정, 2005), 주거형태(배미경, 1998; 양세정, 2005; 여운경·양세정, 2001)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양세정(2005)은 모자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 분석에서 가족 수가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계 총지출의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다. 양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가계 총지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수준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모자가족의 가계지출은 개인의 기호와 선호를 나타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어머니 개인의 선호와 기호가 아닌 가족 수, 자녀수와 같이 자녀의 요구를 나타내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모자가족의 비목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식료품비와 피복신발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 주거형태는 주거비와 기타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한부모 형성 사유도

한부모가족의 경제자원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선강(2015)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사별한 한부모가족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은 부동산 자산의 보유율이 낮고, 자가 또는 전세 보다 월세에 살 확률이 높고, 친지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의 비인적자원으로 소득과 자산을 들 수 있다. 가계 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총지출 규모를 증가시키지만, 비목별 지출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비목도 있고, 감소하는 비목도 있다. 여운경과 양세정(2001)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은 가계의 총소비지출, 비목별 소비지출, 비목별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가계의 금융자산도 총소비지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에 영향을 미쳤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육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양세정(2005)의 연구에서도 소득과 자산은 양부모가족의 총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였으나 모자가족의 총소비지출, 비목별 소비지출에는 소득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자가족의 총소비지출에 실물자산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투입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가계 지출의 차이는 어떠한가?

- 2) 한부모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2015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로서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전국 2,552가구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다단계층화추출법에 의해 표본가구가 선정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이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구선정기준<sup>1)</sup>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한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과 한부모와 자녀, 기타가구원(친지 등)으로 구성된 가족도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5).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역별, 한부모가족 유형별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부자가족을 일정정도 포함하여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비교 연구에 적절한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하였다. 한부모, 자녀, 기타가구원(친지 등)으로 구성된 가구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대상 가구 중 2,099가구가 본 연구의 표본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 가족유형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구분하였는데 모자가족은 어머니와 만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며, 부자가족은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가족유형은 가변수로 사용하였고 준거집단은 모자가족이다. 연령은 만 연령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중졸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고등학교 졸업(고졸), 대학교 중퇴 이상(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도 가변수로 사용하였고, 준거집단은 고졸이다. 취업은 취업과 비취업,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원,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정의하였다. 취업은 가변수로 사용하였고 준거집단은 비취업이다. 한부모 사유는 이혼, 사별, 기타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준거집단은 사별 또는 기타이다. 가족 수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수로 본인을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자원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가족이나 친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 친구 집에 무상 거주,

1)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구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공공임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는 자가와 전세, 그 외로 구분하여 가변수로 투입하였다.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생활수급, 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기초생활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받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 경우 또는 차상위계층을 의미한다. 공적 이전소득도 가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공적 이전소득 없음이 준거집단이다.

총소득은 지난 1년 동안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세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주택, 건물, 토지 등), 부채의 총액을 각각 조사하였고, 총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는 다중회귀분석에 각각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계지출 관련 변수들은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식료품비,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자녀교육비(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베이비시터 비용, 학원비, 아이학교 등록금 등), 자녀 외 가족의 교육비(학비, 직업훈련비 등), 주거 및 관리비(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의료비(자녀의료비, 내 의료비 등), 교통통신비(교통비, 핸드폰비 등), 문화생활비(책값, 극장, 문화시설 입장료 등),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총지출은 월 평균 가계지출 총액으로 조사되었다. 총지출 대비 각 비목별 구성비를 산출하였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지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목별 지출액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sqrt{n}$ )으로 나눈 값을 균등화지출로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총지출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 제시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지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 결정 요인들을 찾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이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여 변수들의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30.3%는 부자가족이고, 69.7%는 모자가족이다. 연령은 평균 43.98세이며, 모자가족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12세, 부자가족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5.95세로 부자가족 아버지의 평균 연령이 모자가족 어머니와 비교하여 조금 높았다. 교육수준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64.8%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27%는 대학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비교해 보면,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의 학력이 66.9%로 아버지 60.1% 보다 높았다. 부자가족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중졸이하, 대학이상의 비율이 모자가족 어머니들 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학력과 고학력의 비중이 부자가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84.2%가 취업하였고, 15.8%는 비취업 상태였다. 취업한 경우의 고용형태를 보면 상용근로자가 38%,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 32.4%,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원이 13.8%로 구분되었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비교해 보면 취업한 아버지들의 비율은 90.1%, 취업한 어머니들의 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단위)		전체(n=2099)		모자가족(n=1465)		부자가족(n=637)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빈도 /평균	백분율 /표준편차	
인구 사회 학적 특성	가족 유형	부자가족	637	30.3				
		모자가족	1462	69.7				
	연령	(세)	43.98	6.270	43.12	6.31	45.95	5.7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172	8.2	96	6.6	76	11.9
		고졸	1361	64.8	978	66.9	383	60.1
		대학이상	566	27	388	26.5	178	27.9
	취업	취업	1767	84.2	1193	81.6	574	90.1
		비취업	332	15.8	269	18.4	63	9.9
	고용 형태	상용근로자	798	38	545	37.3	253	39.7
		임시 일용직	680	32.4	477	32.6	203	31.9
		자영/무급가족	289	13.8	171	11.7	118	18.5
		비취업	332	15.8	269	18.4	63	9.9
	한부모 사유	이혼	1599	76.2	1084	74.1	515	80.8
		사별	342	16.3	258	17.6	84	13.2
		기타	158	7.5	120	8.2	38	6
	가족수	(명)	2.63	.654	2.65	.65	2.60	.665
		2명	961	45.8	647	44.3	314	49.3
		3명	966	46	697	47.7	269	42.2
		4명 이상	172	8.2	118	8.1	54	8.5
경제 자원 특성	주거 형태	자가	383	18.2	248	17	135	21.2
		전세	493	23.5	337	23.1	156	24.5
		보증금 있는 월세	674	32.1	483	33	191	30
		사글세	56	2.7	34	2.3	22	3.5
		무상(가족,친지)	159	7.6	102	7	57	8.9
		무상(친구)	19	0.9	12	0.8	7	1.1
		공공임대	296	14.1	227	15.5	69	10.8
	기타	19	0.9	19	1.3	0	0	
	공적 이전 소득	기초생활수급	490	23.3	381	26.1	109	17.1
		법정한부모/ 차상위	495	23.6	359	24.6	136	21.4
		없음	1114	53.1	722	49.4	392	61.5
	총소득	(월 만원)	168.59	84.87	155.59	74.139	198.41	99.274
	자산 부채 (만원)	금융자산	1022.60	2779.72	993.95	2817.15	1088.48	2692.66
부동산자산		5336.74	9512.08	5019.58	9269.22	6065.21	10017.29	
부채		1368.25	3982.35	1188.13	2352.20	1782.89	6279.38	
종속 변수	지출 (만원)	식료품비	43.31	21.39	41.57	20.40	47.31	23.03
		의류/신발/가정용품비	11.09	8.66	10.83	8.47	11.66	9.07
		자녀교육비	22.93	26.44	22.05	25.44	24.94	28.51
		자녀 외 교육비	2.73	9.14	2.77	9.10	2.64	9.24
		주거 관리비	23.23	13.63	22.77	13.58	24.27	13.70
		의료비	4.43	8.63	4.42	8.73	4.45	8.410
		교통통신비	17.49	10.44	15.88	8.91	21.17	12.57
		문화생활비	5.44	6.03	5.12	5.54	6.16	6.99
		기타 지출	7.93	19.26	6.53	16.06	11.12	24.82
		총지출	138.56	60.16	131.96	55.95	153.73	66.45

율은 81.6%로 아버지들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 사유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76.2%가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났고, 16.3%는 사별, 7.5%는 기타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비교해 보면 부자가족이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 형성의 비율이 모자가족 보다 높았고,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 형성은 모자가족에서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 수는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2.63명이었고, 모자가족은 평균 2.65명, 부자가족은 평균 2.6명이었다. 한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전체 중 45.8%로 나타났고, 모자가족의 44.3%, 부자가족의 49.3%가 한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3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세 23.5%, 자가 18.2%, 공공임대 14.1% 순이었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주거형태의 차이는 모자가족의 공공임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부자가족의 높은 자가 비율에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23.3%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법정한부모 또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모자가족이 부자가족과 비교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법정한부모 또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높았다. 총소득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월 168만5천9백원이었고, 모자가족이 155만5천9백원, 부자가족이 198만4천1백 원으로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았다. 금융 자산은 평균 1,022만원으로 모자가족은 전체 평균 보다 낮은 993만원, 부자가족은 전체 평균 보다 높은 1,088만원이었다. 부동산 자산의 전체 평균은 5,336만원이었고, 모자가족은 평균 5,019만원, 부자가족은 평균 6,065만원으로 부동산 자산도 부자가족의 평균이 더 높았다. 조사대상 가구는 평균 1,368만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자가족은 평균 1,188만원, 부자가족은 평균 1,782만원의 부채가 있었다. 월평균 지출 총액은 평균 138만원이

었고, 지출에서도 모자가족 보다 부자가족의 평균 지출액이 더 컸다.

## IV. 연구 결과

### 1.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비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각 비목별 지출액을 비교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는 각 비목별 실제 지출액 규모를 비교한 것과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각 비목별 지출액을 가족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비목별 지출액을 균등화하였다. 분석 결과 비목별 실제 지출 규모는 자녀 외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가족 수의 영향을 균등화 한 후에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모자가족 보다 부자가족의 지출액이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통신비, 식료품비에서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지출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부자가족의 총지출이 모자가족의 총지출 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은 전반적으로 각 비목별 부자가족의 지출이 더 많은 것과 특히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기타 지출비의 차이가 큰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출 비목의 상대적 중요성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간에 비교하기 위하여 월평균 총지출 대비 각 비목별 구성 비율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월평균 지출액의 비목별 구성 비율은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주거 관리비, 교통통신비, 기타 지출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자가족은 부자가족과 비교하여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통통신비와 기타 지출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출 구성비 순위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이 유사하였는데, 식료품비, 주

〈표 2〉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지출액의 차이

변수		전체				T값
		모자가족 (n=1462)		부자가족 (n=63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제 지출 규모	식료품비	41.57	20,402	47.31	23,039	-5.424 ***
	의류/신발/가정용품비	10.83	8,475	11.66	9,076	-2.011 *
	자녀교육비	22.05	25,446	24.94	28,515	-2.205 *
	자녀 외 교육비	2.77	9,108	2.64	9,247	.307
	주거 관리비	22.77	13,589	24.27	13,699	-2.322 *
	의료비	4.42	8,732	4.45	8,41	-.061
	교통통신비	15.88	8,917	21.17	12,575	-9.597 ***
	문화생활비	5.12	5,543	6.16	6,995	-3.316 ***
	기타 지출비	6.53	16,064	11.12	24,824	-4.285 ***
	총지출	131.96	55,959	153.73	66,458	-7.223 ***
균등화 지출	식료품비	25.91	12,79	29.84	14,71	-7.915 ***
	의류/신발/가정용품비	6.73	5,22	7.36	5,71	-2.480 *
	자녀교육비	13.50	15,13	15.71	17,42	-2.766 **
	자녀 외 교육비	1.73	5,77	1.62	5,72	.393
	주거 관리비	14.23	8,77	15.37	8,82	-2.729 **
	의료비	2.78	5,52	2.81	5,03	-.081
	교통통신비	9.81	5,35	13.27	7,77	-10.227 ***
	문화생활비	3.17	3,39	3.89	4,34	-3.731 ***
	기타 지출비	4.06	9,94	7.15	16,32	-4.431 ***
	총지출	81.96	34,07	97.06	42,56	-7.915 ***
총소득		155.59	74,139	198.41	99,274	-9,765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가족유형에 따른 총지출 대비 비목별 구성비

변수		전체				T값
		모자가족 (n=1462)		부자가족 (n=636)		
		구성비(%)	순위	구성비(%)	순위	
총지출 대비	식료품비	32.97	1	32.15	1	1.468
	의류/신발/가정용품비	8.24	5	7.58	5	2.883 **
	자녀교육비	14.73	3	14.29	4	.721
	자녀 외 교육비	1.84	9	1.57	9	1.099
	주거 관리비	18.38	2	17.26	2	2.370 *
	의료비	3.32	8	3.04	8	1.187
	교통통신비	12.60	4	14.44	3	-5.485 ***
	문화생활비	3.78	7	3.87	7	-.522
기타 지출비	4.09	6	5.75	6	-3.450 ***	

\*  $p < .05$  \*\*  $p < .01$  \*\*\*  $p < .001$

거관리비가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나 모자가족 부자가족 모두 필수적인 소비지출 비목의 비중이 높았다.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앵겔지수가 모자가족 32.97%, 부자가족 32.15%로 산출되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저소득층의 비목별 소비지출의 특징이다. 통계청의 2015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계층별 총지출 대비 비목별 가계지출 비율을 분석한 이현주(2017)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의 식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하여 더 높았다.

## 2. 한부모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과 가족유형의 영향력

이 장에서는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지출에 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 자산 변수의 편포를 교정하기 위하여 소득, 자산에 각각 로그를 취한 값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 중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였고,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분석하였다. VIF값이 2.0 이상이 되는 변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한부모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족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다른 결정 요인들을 찾자 총지출(로그)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다른 통제변수 없이 가족유형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모형 2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된 후에 가족

유형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모형 3에서 가계 소득과 자산을 추가로 투입한 후 가족유형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가계소득과 자산은 가계의 총지출 규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어 가족유형 및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고자 가장 마지막 단계에 소득과 자산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각 모형의 설명력은 2.7%, 32.6%, 64.2%였다. 모형 1에서 가족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총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모형 1의 결과에 의하면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지출 규모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 가족유형, 연령, 교육수준, 취업, 한부모 사유, 가족 수, 주거 형태, 공적 이전소득 유무를 투입한 결과 한부모 사유를 제외한 변수들이 총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이 모두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할 때 모자가족 보다 부자가족의 총지출액이 더 많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인 경우와 비교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취업을 한 경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월세 등의 주거형태와 비교하여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에 총지출액이 더 많았다. 반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인 경우와 비교하여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와 비교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총지출액은 적었다.

모형 3에 소득, 자산, 부채 변수를 추가한 결과 가족유형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사라졌다. 소득, 자산, 부채가 일정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총지출액은 커졌다. 반면 소득, 자산, 부채가 일정할 때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과 비교하여 가계지출 규모가 작았으며, 주거형태가 전세인 경우 월세 등과 비교하여 총지출 규모가 작았고, 범정한부모 또는 차상

〈표 4〉 한부모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

변수1)	모형 1 (n=2099)			모형 2 (n=2098)			모형 3 (n=2059)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4.808 ***	0,011		4,001 ***	0,064		1,227 ***	0,082	
가족유형(부자가족)	0,149 ***	0,019	.165	0,088 ***	0,017	0,098	-0,002	0,013	-0,002
연령				0,007 ***	0,001	0,101	0,005 ***	0,001	0,069
교육수준(중졸이하)				-0,131 ***	0,028	-0,087	-0,021 *	0,021	-0,014
교육수준(대학이상)				0,093 ***	0,018	0,1	0,032	0,013	0,034
취업(취업)				0,257 ***	0,022	0,226	0,004	0,018	0,003
한부모 사유(이혼)				0,001	0,018	0,001	0,008	0,013	0,008
가족수				0,117 ***	0,012	0,184	0,061 ***	0,009	0,097
주거형태(자가)				0,219 ***	0,022	0,203	-0,015	0,02	-0,013
주거형태(전세)				0,118 ***	0,02	0,121	-0,027 †	0,016	-0,027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0,166 ***	0,021	-0,169	-0,017	0,016	-0,017
공적이전소득(법정한부모 등)				-0,156	0,02	-0,159	-0,025 †	0,015	-0,026
총소득(로그)							0,637 ***	0,016	0,731
금융자산(로그)							0,003	0,002	0,024
부동산자산(로그)							0,005 **	0,002	0,055
부채(로그)							0,009 ***	0,002	0,08
F	58,42***			91,53***			243,93***		
R <sup>2</sup>	.027			.326			.642		
수정된 R <sup>2</sup>	.027			.322			.639		

†  $p < 0.1$ , \*  $p < 0.05$ , \*\*  $p < 0.01$ , \*\*\*  $p < 0.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가족유형: 모자가족,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취업: 비취업, 한부모 사유: 사별 및 기타, 주거형태: 월세, 사글세, 친구 또는 친척집, 무상임대 등,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닌 일반가구

위계층인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가구와 비교하여 총지출 규모가 작았다. 마지막으로 총소득, 부동산자산, 부채가 많을수록 한부모가족의 총지출은 늘어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유형은 한부모가족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소득과 자산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

면 가족유형이 총지출에 미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다. 가족유형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총소득을 통해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sup>2)</sup>

가족유형이 한부모가족의 지출에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가족유형에 따른 가계지출 결정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총

2) 가족유형이 총소득을 통해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유형을 독립변수로, 총소득을 매개변수로, 총지출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3단계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Sobel test의 Z값을 계산한 결과 Z=9.73으로 임계치 Z=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지출(로그)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모자가족 총지출 모형과 부자가족 총지출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각각 63.4%, 6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모자가족 모형과 부자가족 모형에서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 총소득, 부채는 공통적으로 총지출을 결정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모자가족의 지출은 부동산자산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반면, 부자가족은 취업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에 소득은 매우 영향력이 큰 변수였다. 가계 지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자원의 원천이 가계 소득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자가족 보다 부자가족의 지출이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컸다. 소득 다음으로 가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 수였고, 그 다음이 부채로 나타났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계 부채가 많을수록 지출이 늘어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가계의 경제자원이 일정한 경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이 늘어났고, 대학교 이상의 학

<표 5>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결정 요인

변수 <sup>1)</sup>	모자가족 (n=1436)			부자가족 (n=623)		
	B	S.E.	$\beta$	B	S.E.	$\beta$
상수	1,186	0,096		1,288	0,172	
연령	0.005 ***	0,001	0,075	0,004 †	0,002	0,05
교육수준(중졸이하)	-0,013	0,027	-0,008	-0,027	0,035	-0,021
교육수준(대학이상)	0,027 †	0,016	0,029	0,041 †	0,024	0,044
취업(취업)	-0,018	0,02	-0,017	0,082 *	0,04	0,058
한부모 사유(이혼)	0,002	0,015	0,003	0,019	0,027	0,018
가족수	0,064 ***	0,01	0,102	0,05 **	0,016	0,08
주거형태(자가)	-0,021	0,023	-0,019	-0,005	0,036	-0,005
주거형태(전세)	-0,022	0,019	-0,023	-0,039	0,03	-0,041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0,029	0,019	-0,032	0,038	0,035	0,034
공적이전소득(법정한부모 등)	-0,027	0,018	-0,028	-0,017	0,029	-0,016
총소득(로그)	0,645 ***	0,019	0,717	0,624 ***	0,03	0,746
금융자산(로그)	0,002	0,002	0,016	0,006 †	0,003	0,052
부동산자산(로그)	0,007 ***	0,002	0,075	0,001	0,003	0,008
부채(로그)	0,009 ***	0,002	0,084	0,008 **	0,003	0,071
F	175,895***			75,657***		
R <sup>2</sup>	.634			.635		
수정된 R <sup>2</sup>	.630			.627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1)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취업: 비취업, 한부모 사유: 사별 및 기타, 주거형태: 월세, 사글세, 친구 또는 친척집, 무상임대 등,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닌 일반가구

력을 가진 경우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지출이 늘어났다.

모자가족은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모두 일정할 때 부동산 자산의 금액이 클수록 가계 지출이 늘어났고, 부자가족은 다른 변수들의 값이 모두 일정할 때 취업을 한 경우 가계의 총지출이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가족은 부동산 자산과 같이 현금화되기 쉽지 않으나 안정적인 경제자원이 확보될 때 현재의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자가족의 현재 소비지출에는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이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총지출 대비 비목별 구성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조사된 지출 비목 중 총지출 대비 구성비가 높은 6개 비목의 구성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6개의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한 결과 6개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6개 모형 중 가족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난 모형은 의류·신발·가정용품비, 자녀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지출비였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전체 지출 대비 의류·신발·가정용품비의 비중, 자녀교육비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반면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전체 지출 대비 교통통신비, 기타지출비의 비중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살펴보면, 식료품비 모형에서는 교육수준, 주거형태, 공적이전소득, 총소득, 부동산자산, 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할 때,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자와 비교하여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총소득이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이 낮았다. 반면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할 때 월세 등의 주거형태와 비교하여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동산 자산의 액수가 클수록 식료품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신발·가정용품비 모형에서는 가족유형, 연령,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이 모두 일정할 때,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과 비교하여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전체 지출에서 의류·신발·가정용품비의 비중이 낮다.

자녀교육비 모형에서는 가족유형, 연령, 교육수준, 취업, 가족수, 주거형태, 공적 이전소득, 총소득, 부동산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할 때, 부자가족인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법정한부모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전체 지출에서 자녀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경우, 취업을 한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월세 등과 비교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자녀교육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거관리비 모형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한부모사유, 가족수, 주거형태, 공적 이전소득, 총소득, 금융자산, 부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과 비교하여 중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한부모와 비교하여 법정한부모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부채가 많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주거 형태가 월세 등과 비교하여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총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거관리비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비 모형에서는 가족유형, 교육수준, 가족수, 총소득,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가 전체

(표 6) 한부모가족의 출지출 대비 비목별 구성비 결정 요인

변수 <sup>1)</sup>	식료품비 (n=2059)			의류/신발/가정용품비 (n=2059)			자녀교육비 (n=2059)			주거관리비 (n=2059)			교통통신비 (n=2059)			기타지출비 (n=2060)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상수	57.568 <sup>***</sup>	3.865		10.328 <sup>***</sup>	1.69		-17.623 <sup>***</sup>	4.004		28.775 <sup>***</sup>	3.014		19.076 <sup>***</sup>	2.11		-5.592 <sup>†</sup>	3.019	
가족유형(부자기족)	0.726	0.596	0.028	-0.464 <sup>†</sup>	0.26	-0.041	-2.344 <sup>***</sup>	0.617	-0.082	-0.594	0.464	-0.026	2.267 <sup>***</sup>	0.325	0.157	0.934 <sup>*</sup>	0.465	0.046
연령	-0.056	0.044	-0.029	-0.095 <sup>***</sup>	0.019	-0.115	0.088 <sup>*</sup>	0.046	0.042	0.059 <sup>†</sup>	0.034	0.036	0.008	0.024	0.008	-0.03	0.034	-0.02
교육수준(중졸이하)	-0.775	0.599	-0.017	-1.023 <sup>***</sup>	0.437	-0.054	-2.724 <sup>***</sup>	1.035	-0.057	3.575 <sup>***</sup>	0.779	0.095	0.604 <sup>†</sup>	0.546	0.025	0.802	0.781	0.023
교육수준(대학이상)	-2.266 <sup>***</sup>	0.613	-0.083	-0.361	0.268	-0.031	1.203 <sup>*</sup>	0.635	0.041	0.265	0.478	0.011	-0.615	0.335	-0.041	0.448	0.479	0.021
취업(취업)	0.234	0.824	0.007	0.194	0.36	0.014	1.765 <sup>*</sup>	0.853	0.049	-0.494	0.642	-0.017	-0.055	0.45	-0.003	-0.517	0.644	-0.02
한부모 사유(이혼)	-0.652	0.622	-0.023	-0.35	0.272	-0.029	-0.808	0.644	-0.026	1.434 <sup>*</sup>	0.485	0.059	0.004	0.339	0	0.102	0.486	0.005
가족수	-0.025	0.408	-0.001	0.038	0.178	0.005	1.07 <sup>**</sup>	0.422	0.053	-0.933 <sup>***</sup>	0.318	-0.059	0.941 <sup>***</sup>	0.223	0.093	-0.782	0.318	-0.055
주거형태(자가)	1.276	0.921	0.04	0.045	0.403	0.003	1.923 <sup>*</sup>	0.954	0.056	-6.729 <sup>***</sup>	0.718	-0.251	0.782	0.503	0.045	2.002 <sup>**</sup>	0.72	0.082
주거형태(전세)	3.268 <sup>***</sup>	0.744	0.114	0.32	0.325	0.026	1.41	0.771	0.046	-6.597 <sup>***</sup>	0.58	-0.272	-0.105	0.406	-0.007	0.182	0.581	0.008
공적이전소득(기초생활수급)	3.044 <sup>***</sup>	0.767	0.106	0.32	0.335	0.026	-2.814 <sup>***</sup>	0.794	-0.091	0.826	0.598	0.034	-0.254	0.419	-0.016	-0.994 <sup>†</sup>	0.599	-0.045
공적이전소득(법정한부모 등)	-0.201	0.709	-0.007	-0.331	0.31	-0.027	-1.322 <sup>†</sup>	0.734	-0.043	1.608 <sup>**</sup>	0.553	0.066	0.484	0.387	0.031	0.985 <sup>†</sup>	0.553	0.045
총소득(로그)	-4.616 <sup>***</sup>	0.751	-0.182	0.51	0.328	0.047	4.792 <sup>***</sup>	0.778	0.174	-1.864 <sup>***</sup>	0.585	-0.086	-1.723 <sup>***</sup>	0.41	-0.124	2.509 <sup>***</sup>	0.586	0.128
금융자산(로그)	0.003	0.083	0.001	-0.017	0.036	-0.011	0.123	0.086	0.032	-0.157 <sup>**</sup>	0.065	-0.053	-0.123 <sup>**</sup>	0.045	-0.064	0.133 <sup>*</sup>	0.065	0.049
부동산자산(로그)	0.249 <sup>***</sup>	0.077	0.087	-0.035	0.034	-0.029	0.251 <sup>**</sup>	0.08	0.081	-0.013	0.06	-0.006	-0.134 <sup>***</sup>	0.042	-0.086	-0.15 <sup>*</sup>	0.06	-0.068
부채(로그)	-0.356 <sup>***</sup>	0.071	-0.111	-0.044	0.031	-0.032	-0.093	0.074	-0.027	0.129 <sup>*</sup>	0.055	0.047	0.07 <sup>†</sup>	0.039	0.04	0.224 <sup>***</sup>	0.055	0.09
F	10.369 <sup>***</sup>			3.713 <sup>***</sup>			23.874 <sup>***</sup>			38.091 <sup>***</sup>			10.565 <sup>***</sup>			6.733 <sup>***</sup>		
R <sup>2</sup>	.071			.027			.149			.219			.072			.047		
수정된 R <sup>2</sup>	.064			.019			.143			.213			.065			.040		

<sup>†</sup>  $p < 0.1$ , <sup>\*</sup>  $p < 0.05$ , <sup>\*\*</sup>  $p < 0.01$ , <sup>\*\*\*</sup>  $p < 0.001$

<sup>1)</sup> 가변수들의 준거집단은 다음과 같다.

가족유형: 모자기족,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취업: 비취업, 한부모 사유: 사별 및 기타, 주거형태: 월세, 사글세, 친구 또는 친척집, 무상임대 등, 공적이전소득: 기초생활수급,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아닌 일반가구



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였다. 투입된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인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총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기타지출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 변수는 가족유형, 가족수, 주거형태, 공적이전소득, 총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값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부자가족인 경우,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법정한부모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총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기타지출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기타지출비의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가계지출을 비교 분석하고, 한부모가족의 가계 총지출, 총지출 대비 비목별 구성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가계지출은 차이가 있었다. 부자가족은 총지출에서 모자가족 보다 규모가 컸으며, 자녀 외 교육비, 의료비를 제외한 7가지 비목에서 모자가족 보다 지출 규모가 컸다. 지출규모에 가족원의 수를 반영한 경우에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 규모의 차이는 유지되었다. 또한 총지출 대비 비목별 구성비에 있어서 모자가

족은 의류/신발/가정용품비와 주거관리비의 비중이 부자가족보다 높고, 반대로 교통통신비와 기타지출비는 부자가족이 더 높았다. 소득수준이 한부모가족의 지출규모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의 지출규모의 차이는 소득수준의 차이에 많은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자가족의 낮은 가계소득과 자산상태, 낮은 취업률, 낮은 자가 및 전세 비율 등은 부자가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험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데(고선강, 2015), 이러한 가계경제자원의 투입 요소들이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것은 결국 낮은 가계지출 규모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모두 전체 지출에서 필수적인 소비지출의 비중이 크다.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모두 식료품비와 주거비 지출에 총지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다. 총지출에서 필수재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개인의 선호와 기호에 따른 소비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지출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의 높은 삶의 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부모가족이 필수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하는 매입임대 주택 사업 등도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가족유형에 따라 가계지출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가족유형은 가계소득을 매개로 가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은 가계의 구매력을 제공하는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한부모의 선호를 나타내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약했다. 한부모가족의 가계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족 수, 교육수준이었지만 설명력은 낮았다. 양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는 부모의 연령,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거 유형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양세정, 2005)과는 달리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은 구매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계소득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이 가계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지출,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지출이 적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부모가족의 낮은 소득은 적은 총지출로 연결되고, 작은 지출 규모에서 필수재의 비중은 크게 나타나며, 한부모가족의 기호와 선호를 반영한 지출의 여지는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경제생활을 위해서 소득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자가족은 모자가족과 달리 취업 여부가 가계 총지출에 영향을 미쳤는데, 부자가족은 소득 수준이 같아도 아버지가 취업을 한 경우 총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은 소득의 금전적인 가치뿐 아니라 지출을 포함한 가계경제 생활에 안정성을 높이므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부자가족 아버지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모자가족 어머니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일자리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이며 안정적인 가계경제 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넷째, 모자가족과 비교하여 부자가족의 자녀교육비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더 컸으나, 가계의 소득과 자산, 다른 특성이 일정할 때 부자가족의 전체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모자가족보다 적었다. 즉 비슷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중 모자가족의 총지출에서 자녀 교육비 비중이 부자가족보다 더 크다는 것이

다. 한부모가족 가계지출의 많은 부분이 가계소득에 의해 설명되지만, 자녀 교육비 지출에는 가족유형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녀 교육비 지출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 진학과 연결되고,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관참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와도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이동의 유일한 도구로 남아있는 교육의 기회가 부자가족 자녀들에게 덜 제공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 모자가족은 부자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체 지출에서 자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 한부모 어머니들이 한부모 아버지들과 비교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높아서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 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부모 어머니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강기정·박수선, 2013), 한부모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가 자녀 교육비 지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Ziolo-Guest(2009)의 연구에서도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의 자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더 컸다. 양부모가족과 모자가족의 지출을 비교한 양세정(2005)의 연구에서도 모자가족의 총지출규모는 양부모가족의 60%에 불과하지만, 자녀 교육비의 비중은 모자가족이 양부모가족보다 더 높았다. 모자가족의 높은 자녀 교육비 지출은 부족한 소득을 자녀 교육비로 편중되게 사용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양세정, 2005).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 결정 요인들을 고려한 한부모가족 맞춤형 가계재무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정책의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 한부모가족인데,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 형성되기 이전부터 저소득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기 보다는 한부모가족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Hanson, McLanahan & Thomson, 1998). 한부모가족이 되고 한부모가족으로서 삶에 적응하는 시기에 새로운 생활에 적합한 가계재무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현재 보다 건강한 가계경제 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유형(모자가족, 부자가족), 가족생활주기(자녀의 연령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간(초기, 중기 등)을 고려한 가계재무설계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가족 정책전달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가계지출에 관하여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서 한부모가족 안에서의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결코 적지 않다. 그 안에 부자가족의 비율은 25%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의 가계 경제를 빈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 가계의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접근하되 한부모가족 안에서의 다양성에 초점을 둔 더 많은 연구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기정 · 박수선(2013).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사례관리 실천 경험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39-62.
- 2) 고선강(2014).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3) 고선강(2015). 부모의 성별에 따른 한부모가계의 경제자원 차이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95-120.
- 4) 박민주 · 이희숙(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편모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1), 55-71.
- 5) 김진욱(2010). 한부모 가구의 빈곤과 소득이전: 양부모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1), 101-125.
- 6) 노정자 · 강기정(2012). 한부모 이혼 남성의 홀로 서기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45-163.
- 7) 문은영(2011).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1(2), 135-174.
- 8) 박정윤 · 원아름(2014).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 개인자원, 가족자원, 발달환경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21-141.
- 9) 배다영 · 진미정(2011). 한부모의 성별 및 가구구성별 경제적 여건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1-20.
- 10) 배미경(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9(4), 83-100.
- 11) 서지원(2013).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자원의 삶에 질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03-124.
- 12) 손서희(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59-75.
- 13) 손진분 · 박미려(2007). 한부모 가정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3), 45-65.
- 14) 양세정(2005). 편모가계와 양부모가계의 소비지출 행태 비교. 사회과학연구, 20, 1-20.
- 15) 여성가족부(2015).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6) 여윤경 · 양세정(2001). 가구유형에 따른 소비지출패턴 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12(4), 65-81.
- 17) 이성립(2004). 편모가계 여성가장의 취업 및 가계의 경제상태: 양부모 가계와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69-179.
- 18) 이현주(2017). 저소득층의 소비 특성과 그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331, 1-4.
- 19) 조희금 · 김경신 · 정민자 · 송혜림 · 이승미 · 성미애 · 이현아(2010). 건강가정론. 서울: 신정.
- 20) 진미정 · 김은정(2004).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27, 163-188.
- 21) 최홍철 · 최현자(2014).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애주기와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3), 93-125.
- 22) 통계청(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 23) 통계청(2016). 2016 인구총조사 자료. 대전: 통계청.
- 24)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2015~2045. 대전: 통계청.
- 25) 홍성희 · 김혜연 · 김성희 · 윤소영 · 고선강 (2008).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 서울: 신정.
- 26)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8). Windows on divorce: Before and after. Social Science Research, 27, 329-349.
- 27) Ziol-Guest, K. (2009). A single father's shopping bag purchasing decisions in single-father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5), 605-622.

- 투 고 일 : 2017년 12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2월 07일
- 게재 확정일 : 2018년 02월 14일